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벧엘과 같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억들은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을 승리의 확신으로 변화시켜줍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올 한해는, 상황을 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매일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370장 다 갈 이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가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덕 담 가족중어른

주기도문 다 갈 이



민족 명절인 설을 맞이해 오늘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같이 설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시107:1)

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2.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 곳 이름을 벰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벰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지명 중 하나입니다. ‘벰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 기억할 것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상황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독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급히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져 야곱은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위협과 자신을 지켜줄 안식처가 없다는 절망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을 ‘벰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만 보았을 때는 그곳이 절망의 땅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야곱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은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벰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이 너무나 귀해서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새 힘을